망각을 위한 기억, 기억을 위한 망각

장진택

I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게도 다가왔다. 때문일까,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매순간 나를 감싸는 주변의 환경이 지나치게 허무해져 버렸던 것 같다. 이는 단지 내가 당장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동안 주변을 맴돌았던 ‘시국(時局)’이라는 말을 빌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점차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건 사실 일찌감치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해방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크나큰 흐름에 휩쓸려 나 역시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이 모든 종국(終局)적 분위기를 온 몸으로 받아내어야 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한 동안 꺼려했던 자기 몰입의 순간들을 무심코 벌려왔던 것일까. ‘글쓰기’라는 매체를 통해 완전히 나에게로 침잠하는 행위는 솔직히 그 자체로 두렵고 괴로운 것이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첨언하는 것들에 덧붙여 이미 이러한 몰입의 행위가 내가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최소한의 긍정성 중 일면을 깎아내려가고 있음을 알았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만약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왜 이렇게 자기를 자승(自繩)하는 일을 자처하게 된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과연 내 의지로 인해 자초하게 된 일인가? 어쩌면 나는 자각하기 이전의 어떤 순간에 이미 특정한 일을 맞이하도록 인도되어버린 건 아니었을까? 사람이라 함은 언제나 정황들과 교접하며 자아를 창조/변조하거나 제 존재의 방패막이를 형성해 낸다. 나 역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일종의 자기 위안을 일삼아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태도는 그저 부족한 자기 책임감 혹은 자존감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발현한 억지스러운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그래, 이는 (‘나’에 의한, 나라는 ‘사람’에 의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일종의 회피적인 혹은 자기방어적인 태도가 수반하는 어떤 죄책감 비슷한 감정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나는 서둘러 단정했다. 굳이 그 이유를 밝히자면 나의 태도가 어떠한 연유로 발현한 것인지를 세밀히 따져볼 때, 나는 면벌부(免罰符)를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징후들은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찾아오는 바람 냄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이미 내 콧잔등을 스쳐가는 어떠한 변환의 시발점이 풍기는 익숙하지 않은 역변(逆辯)의 미풍(微風)을 불현듯 알아차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 단박에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사회, 좁게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아주 가끔씩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지는 모두에게 단숨에 허락되는 것도 아니어서 아주 영민한 몇몇 사람들의 예민한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어떤 이는 스스로가 변화의 기운을 인지했음을 자각하고 있기도 하고, 몇몇은 그것에 대해 아리송해 하는 상태에 머무르며, 다른 이들은 이를 스스로 명료히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사적인 말투, 즉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포착 가능한 주관적 어조를 통해 이를 무의식적으로 표출한다. 또한 이미 변화의 징후를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감지의 포착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려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자기 의심의 미결(未決)로 인해 본인이 어떤 징후를 포착하고 있음을 은근하게 표현하려고 든다. 결국 우리는 징후의 감지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을 표하는 증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예를 들자면, 미디어 매체를 통해 특정한 징후가 사회적 이슈로서 확연(確然)했던 것임을 확신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누가 이 징후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혹은 자신이 이를 체감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주저없이 본인의 의견을 남들에게 피력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타인을 통한 자기 인정이 곧 우리에게 특정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끔 하는 것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미묘한 징후를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몇몇 이들과 나만의 방식으로 공유했다. 그 알아차림과 드러남 사이의 선후 관계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그 알아차림의 과정 또한 너무나도 복잡하고 모호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작은 외침 정도에 불과했던 징후 감지에 대한 나의 표현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바는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선견(先見)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차렸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님을 명료히 밝힌다.

II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로 한정되어있음을 차치하고서라도, 언젠가부터 타인들과 만나서 나누게 되는 이야기의 주제가 계속 같은 궤를 돌고 있었다는 점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대화의 주체가 두 가지 즈음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데, 그 하나는 내재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나의 관심이 충만해 있다는 조건 하에, 어떤 일통(一統)한 주제에 너무나도 몰입되어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성되고 있는 느낌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완전한 순수의 지점에서 깊고도 풍부한 의견들을 발화자 간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이는 두 말할 것 없이 주체를 포함하는 대화의 당사자 모두에게 아주 긍정적이고도 건강한 소통을 경험케 하면서, 모두에게 있어 발전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는 매우 주요한 기회라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운이 좋은 경우, 풍만한 긍정의 기운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어쩌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서로 다른 두 의사(意思)가 진정한 ‘합일’의 지점에 다다를 수 있는 순간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의 상황에 의해 모든 대화들이 통제당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는 감당키 어려운 큰 재앙 또는 역사에서의 결정적 사건이 발발해 모두를 포위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특정 사건에 의해 지배당한다. 거대 사건에 대한 주제를 제외한 다른 대화의 소주제를 소환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오묘한 죄책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설령 그것이 죄악시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새 대화 주제는 다시 그 사건으로 회귀하려 꿈틀댄다. 여기서 내가 후자의 경우를 애써 ‘통제’라 명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순수한 의도에서건, 반대로 불손한 의도에서건 특정한 순간으로 자석처럼 이끌려 가야만 하는 순간은 자유로운 인간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순간 또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것은 다수의 관심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기운을 형성하며, 한동안 비추어지지 않았던 음지를 달구어 새로운 아지랑이를 피어오르게 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이고 이로운 에너지로서 다시금 작용하면서 장(場)에서의 필요충분적 다양성을 촉발시키거나 확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통제적 상황’은 그것이 다분히 이성적인 범주를 파괴하며 개인의 존재를 무심하게 소멸시키거나 개별적 자아가 이에 대해 환멸감 또는 무력감을 강제로 느끼게 하는 경우, 바로 그 지점이다.

음산한 기운이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운무(雲霧)가 가득한 도시에서 다들 지나칠 정도로 들떠있거나 침울해 있는 듯 보였다.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진 불편한 기운의 소용돌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극단적으로 그 상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하거나, 상황을 외면하며 소극적인 무능력의 인격체가 될 것을 교묘하게 명령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말적 징후 앞에서 환호했고, 그들은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미친듯이 춤추면서 자기 자신과 모두를 동요하는 환희의 순간에 열광적으로 집착했다. 그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자신과 스스로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무게를 저울질 해대면서 자기들의 성을 견고히 축조하려고 눈치를 보았다. 이러한 혼란의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불현듯 서글퍼졌다. 내가 느꼈던 서글픔의 근원은 나 조차도 스스로를 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본인을 어느 레이어 상에 위치토록 할 것인지를 남몰래 고민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내가 그 때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나름의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해하고 있다 한들 왠지 찜찜하게나마 자기 반성적 어조를 지금도 띄우게 되는 연유는, 나 역시도 나를 대표할 만한 어떤 집단에 속해야만 한다는 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인지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올바른 선택’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화들은 따분했고, 건설적인 관계들만이 산발적으로 나를 계속 찔러댔다. 예전처럼 소위 인간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들을 한 ‘사람’으로서 드러낼 여유는 점차 소실되어갔다.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꽤나 밝은 표정을 시종일관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때로는 애써 함께 낄낄거리기까지 했지만 실상 내 속은 거멓게 타들어갔다. 가면을 뒤집어쓴 채 피상적인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한 편의 연극 무대 위에서 나는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무대 저 너머를 인지하기엔 강렬하게 나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의 높은 조도가 이미 시야를 하얗게 만들어 놓은 후였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백야(白夜) 아래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거의 실명 직전에 이르러 황급히 그 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III

미술계라는 곳에 어설프게나마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란 생각보다 넓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다만 ‘미술계’라 명명하는 큰 세포의 덩어리가 자기 유지를 위한 연료를 공급받거나, ‘미술계’라는 세포가 다른 세포 배양을 위한 원료 자체가 되는 경우 혹은 미술계 세포가 기능하는 교차로의 지점, 아니면 이로서 구성되는 상위 범주 체계의 장기(臟器)들을 생각할 때, ‘(한국) 미술세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미묘한 지점에 대한 의미-시각의 배율을 미세하게 조절해 나갈 때에 관찰 가능한 세포의 형태와 크기, 분열된 세포들이 새로이 조합되며 생성하는 패턴의 형상은 우리가 만화경을 들여다 볼 때의 그것과 같았다. 하나의 이야기를 분절하는 행위의 의미 크기는 그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큰 발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정도이기도 하면서, 정반대로 때에 따라 그 행위를 통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섭리를 권력의 획득과 상실 구조에 대유해 붙이고저 하는 덧말은, 몇몇 사람들은 미술계의 시스템을 오롯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도 하지만, 정치판의 생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언제 모든 권한을 모두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곧 ‘세상’이자, ‘세상’이 곧 ‘나’를 통해 자기 존재를 반영(mirroring)한다는 공식, 이러한 공식의 통용은 미술계에 속해 있는 많은 종사자들의 역할 및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인이 반(半)공인이라고 인식되는 혹은 인식되어야만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대화를 기억하거나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나는 로컬(local) 미술계에 내가 진입한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복기해 보았다. 이로써 나는 최소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대화들의 방향성이나 뉘앙스(nuance), 양상의 일정한 흐름 위에 재탑승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나의 감지나 자각 그리고 일종의 패턴화(patternisation) 방법론을 확인하고, 소위 이를 자기 참조(self-referencing)하면서, 이제는 허락된 ‘이후’를 위한 각주달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2015년 9월 즈음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좀 더 깊숙이 돌이켜보면 그 때는 이 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혼돈의 시발점을 이미 살짝 지나친 뒤였던 듯하다. 사람들은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거의 모든 기준들에 대하여 거침없는 비판의 채찍을 휘두른 뒤에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이 때에는 누구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플레이어들(players)의 거친 호흡을 따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당시의 광경은 과거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행해졌던 검투사 경기와 비슷한 것이어서, 한 명의 선수가 단기접전을 벌이는 형식이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이 느슨한 결투의 대상을 가지고 다대다로써 검을 겨누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게 보였다.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거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으며, 때문에 모두가 권모술수에 능통해지거나 적어도 사전에 상대방이 펼치는 수법에 대해 언제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적극 차용해 가면서 이른바 수퍼-에고(super-ego)적 정체성을 당시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살아남는 그 때의 방법이었다. 당연하게도 본래 이런 세태를 살아내기에 적합한 정체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금새 주목을 받는 위치로 급격히 부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현상을 그저 시류(時流)인 마냥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 스멀거리는 이상한 부자연스러움 때문이었다.

IV

문화 예술계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는 순간은 많은 부분 겹쳐있고, 그 곳에 자리하는 사람들의 구성 또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호 간에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림잡아 누가 누구인지 정도는 몇 회 정도 전시 오프닝 등의 행사에 들리다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이다. 원체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점차 나도 몇몇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었던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될 기회들이 가끔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한 것은 본래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불편한 낯섬을 앞세워 상대방 또한 자연스럽게 나에게 굳이 먼저 접근할 틈을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인해 이방인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선점했던 나는 때때로 온라인 상에서 SNS를 통해 사람들과 느슨하게 소통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결국 무명씨(無名氏, an unknown person)는 범주 내에서 도태된다. 명예의 권력화는 이러한 설정으로부터 발발한 것이 아닐까. 누구도 양치기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몰려가는 양 떼 속에서 선두 무리에 속하려 하거나 중간 즈음에서 다수의 양들을 이끄는 (듯 보이는) 양치기 견이 되고 싶어는 했었던 것 같다. 담배 한 대 정도를 태우는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서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가져다주는 이해관계(利害關係)에 대하여 재빠르게 파악하고 반응 혹은 대처하면서 스스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미 그 과정에 꽤나 익숙해져 있는 듯 보였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아와 자아가 만나고 소통하는 지점에서 자아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드러내 보인 후 내 주변의 타인과 진정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주변적인 요소, 즉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떠한 관계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려는 태도가 어렴풋하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나는 관계에서 발발하는 이러한 징후로부터 많은 감지들을 내적으로 자기 확인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스스로의 심지각(心知覺, a mental perception)을 통해 징후의 편린들을 재조합해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관계’의 최소항으로부터 그것이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나아가 세계와 자아 사이 관계로의 확장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선 위에서 나의 기억은 많은 것을 재조작하거나 재정립하려 했을 것이다. 나는 ‘수집된 기억’-이는 어느 기점에 나를 휘감았던 내 외적 느낌과 이로부터 발로(發露)하는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며,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금 재정립 또는 재조작될 나의 기억을 내포하는 것-에 다시금 접속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서술된 기억에 새로이 달리는 나의 내주 혹은 각주들은 총체적이고 종합된 기억의 파편들이 이루는 결합 지점을 다시금 확인토록 기능하기도 하고, 이에 더해 그 결합의 지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써 당대의 (뉘앙스에 가까웠던) 현상들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나는 이 때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을 불현듯 잡아냈었고, 내 모든 의심은 시작되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해 냉철하고도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기를 서슴치 않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을지라도, 지나치게 영리한 방식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천의 매뉴얼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고, 증명하고, 배포하는 태도는 미술에 있어 존재 가능한 열린 형식을 상실토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쩌면 진부한 태도로 일상적 사건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상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냉정한 판단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행자적 신조가 혼란스러움을 조장하는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잠깐의 고요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V

이제 주변을 부유하던 석연치 않은 결정들과 결과들이 남긴 어지러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었다고 나는 감히 일견(一見)한다. 파도는 마침내 잠잠해 질 기미가 보이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친 파도를 헤치며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디었던 우리들은 이젠 잠시의 고요가 가져다 줄 전혀 다른 환경과 분위기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나름의 적응 준비를 마쳐야만 한다. 이는 그 끝을 예측키 어려운 지루한 무고(無故)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난리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곧 가뭄이 찾아왔다. 역사를 이끄는 결정적인 사건과 사건 사이의 찰나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기묘한 망실감으로 인한 우울증세를 보이듯이, 우리는 여파의 뒤를 잇는 상실의 시대를 조만간 맞이하게 되리라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누군가는 절명(絶命)의 시기에 항상 등장하는 성웅(聖雄)을 고대하겠지만 편안한 안정(安定)이 선사하는 일상의 즐거움 또한 그 의미가 명확할 것이다. 지옥같은 질곡의 삶을 살아내고서 풀어놓는 본인의 영웅담이나 성취감에 심취해 매일을 보낼 수 있던 시기를 지나고 천국의 나른함이 바로 밀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옥과 천국의 간극을 차지하는 연옥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요괴들을 마주쳐야만 한다. 무료한 일상과 비상(非常)의 시국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느 곳을 향하도록 방향타를 조정할 것인가? 만약 내가 설정하게 될 조타의 방향이 ‘나’라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목적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 하에 모두가 선택하게 될 역사의 파향(波向)과 흐름을 함께하게 된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를 그저 에고 트립(ego trip) 속에 가두지 않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대는 또 다른 최초(最初)를 맞았고,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디께쯤을 살고 있다. 청년의 삶과 시대의 변환점이라는 중간 지대적 공통 분모를 가진 채, 나는 나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전환기적 책임감을 또 한번 다독거린다.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살아간다.

2017년 3월에

* 본 작업은 제니 조 개인전 «큰 창을 향해 반짝이는 그림자(Illuminating Shade for Big Window)» 중, 제니 조와 김성은의 작업 ‹어떤 예고편: 잊혀진 꿈의 흔적›에 덧붙인 협업의 결과물임을 참고할 것.